

터져나온 '아우성'에 초긴장... 회식 자제·교육 강화 '몸조심'

직장인 김철환(52·광주시 서구 동천동) 씨는 최근 고등학생 딸로부터 '아빠는 멋쟁이냐'는 질문을 받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빠는 '미투'(Metoo)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았으나, 그리고 살고 있다고 되물었기 때문이다.

25년 동안 나름대로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김씨는 딸의 질문에 순간 머뭇거리긴 했지만 "당당하다"고 답했다.

김씨는 "딸이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해 당황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아버마저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듯 해 하루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면서 "혹시라도 일반적인 남자를 보는 딸의 가치관이나 시선이 잘못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6일 광주 출신 서지현 김씨가 검찰간부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로 촉발된 'Metoo' 운동이 확산하면서 기존

남성 중심의 사회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다. 특히 법조계는 물론 종교계, 학계, 정치계, 문화·예술계 공직사회 등을 가리지 않고,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여성인권보호관 직제를 신설했고, 공공 기관은 회식 자제령부터, 고발 청구 개설 등 다양한 방지책을 내놓고 있다.

또 직원들의 입찰에 이른바 '손버릇이 나쁘다'고 이름이 오르내리던 일부 간부 공무원 등은 혹시나 자신이 '미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8일 광주 남구청에서는 4급 공무원 A씨가 지난 3년간 업무 중 여직원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 공직사회에서도 내부적으로 일부 간부 공무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미투 확산에 달라진 광주·전남 풍경

광주시 전국 첫 여성인권보호관 신설...전남도는 전수조사 조선행대 고발 청구 개설...해경, 여경 숙소 이중안전장치도

광주시청의 한 여성 공무원은 "평소 성적 농담을 잘하고, 술만 마시면 여직원들에게 스킨십을 하는 몇몇의 이름이 살생부처럼 떠돌고 있다"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공직사회의 성추문은 조만간 공론화될 듯 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자치단체들은 아예 회식 자제령과 함께 노래방 같은 회식 코스를 배제토록 하는 등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

광주 북구는 지난달 14일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건전한 회식문화 조성' 공문을 각

부서에 보내 "일부 공직자들이 회식 장소에서 본분을 망각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서 부서장 책임하에 자체교육을 필히 실시하고, 건전한 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북구는 또 실천 사항으로 저녁 회식의 경우 2차·3차 회식 문화를 지양하고, 폭탄주 등 음주 강요·노래방 문화 자제, 음주 운전 금지, 스포츠·공연 등 문화 회식을 장려했다.

지난달 산하기관에서 간부의 성추행 논

란이 일었던 전남은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본청·사업소·출연출자기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또 이달 내 성희롱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성희롱 예방 매뉴얼도 배포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도 6일 '2018년 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비함정에 여경 6명을 배치한 여수해경 등은 경비함정 내에서 생활하는 여성직원들을 위해 출입문에 이중안전장치 등을 설치하고 주변에는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학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투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지난 2일 교내에 설치된 양성평등센터를 통해 미투 고발장구를 개설하고 제보를 받고 있다. 또 학교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반면 미투 운동 확산으로 회식이 사라지고 2차 문화도 없어지면서 노래방, 술집 등이 매출에 직격탄을 입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부 회사에서는 이성 동료 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등 미투 운동에 따른 역효과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일부 회사에선 남성 간부들이 여성직원과의 대화 도중 "혹 이것도 미투 대상이냐"는 등 비아냥 거리는 말을 하는 등 이중의 고통을 주는 사례도 적잖다는 게 여성 직장인의 하소연이다.

한 남성 직장인은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듯 해 불편하다"며 "평소 여자 동료에게 친밀감의 표시로 어깨를 툭 치는 장난 등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말로 표현하긴 어렵지만 회사 분위기도 좀 어색하다"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여성 변호사·여직원 절반 "성폭력 피해 경험"

실태조사 발표...예방교육 강화·전담기구 설치 등 요청키로

광주지역 여성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여직원 절반 가량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 10명 중 2명은 형사법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강간(미수),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추행 등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 법조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성폭력 실태조사단을 구성하고, 지난달 8~20일 광주여성변호사 102명과 법률사무소 여성 사무직원 452명 등 554명을 대상으로 '2018 광주 법조계 성폭력, 성폭력 실태조사'를 했다. SNS, 문자메시지를 통해 설문 형태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는 변호사 102명 중 56명, 사무직원 452명 중 36명이 응답했다. 응답자 중 48.9%인 45명은 최근 3년 내에 직·간접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으며, 강간(미수),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추행 등 형사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사례도 18.8%나 됐다.

유형별 피해 사례는 외모 평가에 의한 성희롱이 28.8%로 가장 많았고, 음담패설(16.8%), 특정 신체 부위 응시(16.4%), 신체접촉(16%) 등의 순이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항의하거나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가해자 대부분은 웃어넘기거나 무시했고,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응답자 45명 중 11명이 문제를 제기하고 업무상 불이익, 악의적 소문 등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성폭력 정기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다는 응답도 26%에 불과했다.

여성변호사회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고려, 비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지방변호사회 내 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설치, 피해 예방·지원책 마련 등을 광주 지방변호사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8일 오후 6시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 조사 결과 보고·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 설치

광주·전남 등 전국 지방청에

'물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 음란물 유포를 비롯한 사이버 성폭력범죄를 전담할 수사팀이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국 지방경찰청에 설치됐다.

경찰청은 6일 서울 용산구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 성폭력수사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수사팀은 불법 촬영 음란물이나 아동 음란물 유포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폭력범죄를 전담 수사하고, 피해자 상담과 음란물 삭제·차단 안내, 공조수사 등 업무도 담당한다.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1~6명씩 전국 50명 규모로 운용되며, 여성 피해자가 많은 성폭력범죄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진술이나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방청마다 여경을 1명 이상 배치했다.

수사팀은 여가부·방송심의위 등 국내 기관은 물론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국세청(IRS),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 외국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공조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발대식과 함께 한국어성변화위원회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사이버 성폭력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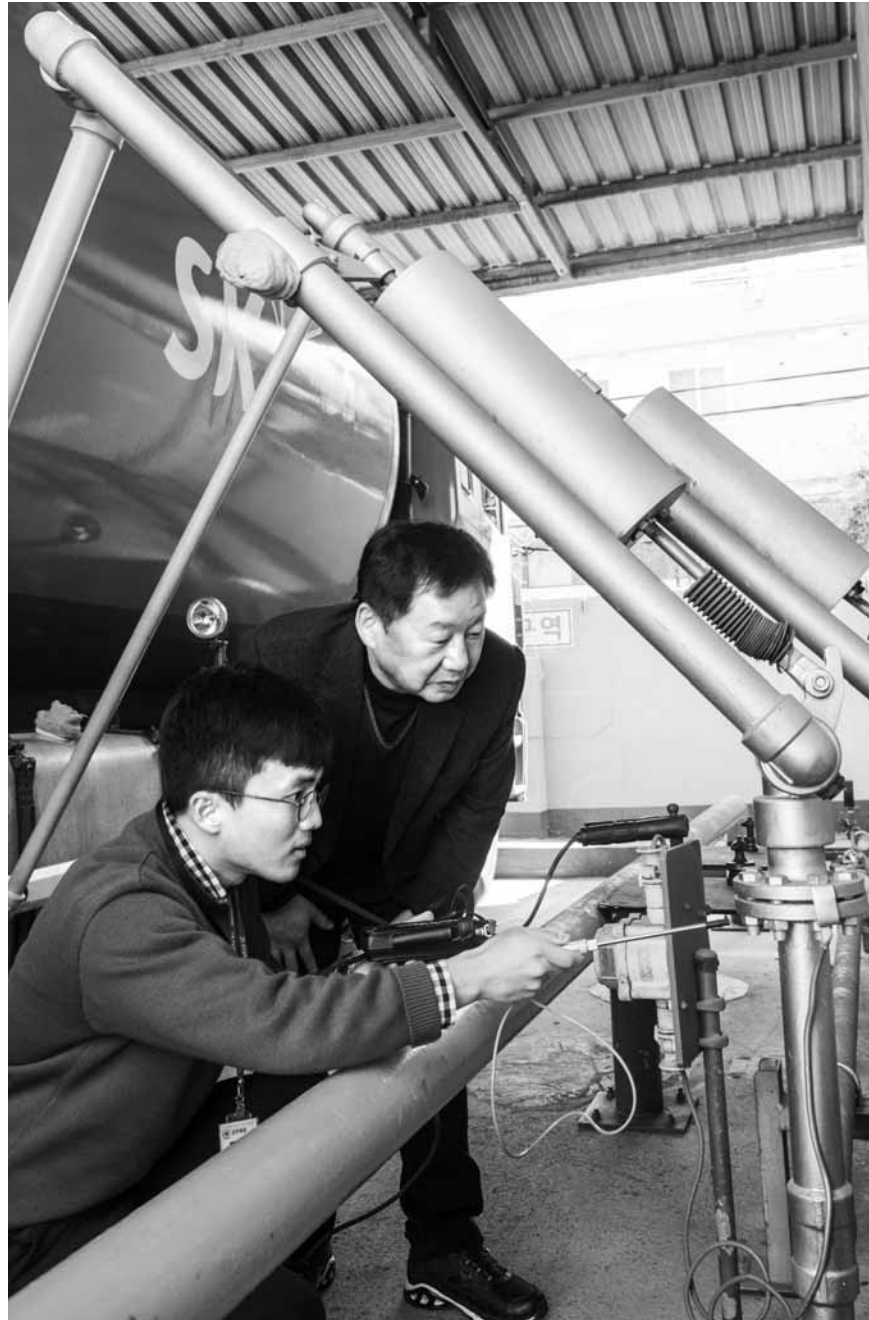
원룸서 살던 쌍둥이 형제

숨진 지 한달 만에 발견

원룸에서 40대 쌍둥이 형제가 숨진 지 수일 만에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9시 30분경 광산구 한 원룸에서 쌍둥이 A(46)씨와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인이 발견했다.

쌍둥이 형제의 시신은 숨진 지 한달 여가 지나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으며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미혼인 이들은 함께 살면서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했으며 다른 가족과는 장기간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현영기자 young@



LPG충전소 안전 점검 2018국가안전대진단이 진행되고 있는 6일, 광주 북구청 기업지원과 에너지관리팀 직원들이 두암동의 한 LPG충전소 기계실에서 가스검진기를 이용해 시설을 안전점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제2순환로 1구간 사업 전직 공무원 금품수수 입건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난을 받은 광주 제2순환로 1구간 사업이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광주시가 지난 2016년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사업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제2순환로 1구간 투자방식 변경을 놓고 협상 실무 담당했던 전직 공무원 조모씨와 돈을 건넨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6년 12월 제2순환로 1구간 투자방식 변경을 놓고 민자사업자와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민자사업자의 중개자를 자처하며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와 김씨는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집유기간 중 또 여성 속옷 슬쩍

○~가정집에 집입해 60대 여성의 팬티를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6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48)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낮 12시35분경 광주시 광산구 B(여·64)씨의 1층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 빨랫줄에 걸려있는 6만원 상당 팬티 6점을 가져갔다는 것.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여성 속옷을 훔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에서 A씨는 "B씨 집에 들어가는 했으나 결코 팬티는 훔치지 않았고 소변만 보고 나왔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 /김현영기자 young@

<h2 style="text-align: center;">영광주택매매(급매)</h2> <p style="text-align: center;">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p> <p style="text-align: center;">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p> <p style="text-align: center;">뒷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 style="text-align: center;">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인직매 010-6670-9800</p>	<h2 style="text-align: center;">경매물건 (추천)</h2> <p>*화순 도곡 천암리 객실 32개 (월 4,000만 수익예상) 감정:37억 최저:16억7천</p> <p>*담양 삼다리 토1,004평 건750평 감정:30억 최저:17억</p> <p>*화순 도곡면 토995평 건991평 감정:38억7천 최저:13억8천</p> <p style="text-align: center;">010-6670-9800 062)382-5500</p>	<h2 style="text-align: center;">경매교육 (3월초 개강)</h2> <p>1) 이론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p> <p>2) 실전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실전투자</p> <p>3) 경매 평생반 ▶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할수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진행</p> <p style="text-align: center;">경매물건 추천</p> <p>①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상가) 주차완비 (실명시 100평) 감정가 6억7천 → 최저가 4억6천</p> <p>② 서구 치평동 해광한신 (24평) 감정가 1억5천8백 → 최저가 1억1천</p> <p>③ 서구 마름동 (주택) 감정가 1억3천 → 최저가 9천1백</p> <p style="text-align: center;">[배우면서 컨설팅가능(경험자환영) 사무실 프리 근무할수분]</p> <p style="text-align: center;">010-6670-9800 062)382-5500</p>	<h2 style="text-align: center;">법률 경매 (주)대신경매</h2> <p>1) 남구 노대동 (상가건물) 어린이집 감정:4억8천7백 → 최저:3억4천1백</p> <p>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호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빌딩) 감정가 1억4천4백 → 최저가 8천</p> <p>3) 담양군 담양읍 (무인텔) 감정 30억2천4백→최저 16억9천</p> <p>4) 무안군 운남면 (노유자시설) 감정9억 3천 → 최저3억 3천</p> <p>5) 광산구 수암동 (1층 상가) 감정가 9억6천 → 최저가 6억7천</p> <p>6) 광산구 신창동 (원룸) 감정:3억8천2백 → 최저:3억8천2백</p> <p>7) 광산구 장덕동 (근린주택) 감정 13억1천9백 → 최저 13억1천6백</p> <p>8) 순천시 조례동 (목욕탕) 감정 39억2천5백 → 최저 27억4천7백</p> <p>9) 화순군 도곡면 천암 (속박시설) 감정 38억7천 → 최저 13억8천</p> <p>10) 구례군 산동면 대평리 (근린시설) 감정 7억2천2백 → 최저 3억2천3백</p> <p>11) 나주시 성북동 (근린주택) 토지:439평 감정:32억6천 → 최저:14억6천</p> <p>12)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전원주택) 감정:3억6백 → 최저:2억1천4백</p> <p style="text-align: center;">A.P.T · 주택 · 공장 · 토지 (기타)</p> <p>① 서구 치평동 금호타운 아파트 (31평) 감정 2억2천4백 → 최저 1억5천6백</p> <p>②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아파트(24평) 감정 1억5천3백 → 최저 1억7백</p> <p>③ 광산구 수암동 대방노블아파트 (45평) 감정 4억5천8백 → 최저 4억5천8백</p> <p>④ 서구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2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p> <p>⑤ 광산구 소촌동 스위트밸리 (3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p> <p>⑥ 광산구 용동(공장) 토 500평 건 445평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6억7천</p> <p>⑦ 함평군 신광면 (공장) 감정 26억4천 → 최저 7억5천7백</p> <p>⑧ 광산구 삼거동 (공장)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p> <p>⑨ 목포시 산정동 (노유자시설) 감정 16억8천2백 → 최저 9억4천</p> <p>⑩ 담양군 금성면 (임야 5,730평) 감정 9천 → 최저5천</p> <p style="text-align: center;">010-6670-9800 062)382-5500</p>
---	--	---	--